

## 3》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 6》국제캠퍼스 학생·버스기사 간담회



## 2016학년도 서울, 국제캠퍼스 하계 계절학기 개설안내

개설과목 확인 : 2016.05.04  
수강신청 기간 : 2016.06.14 10:30 ~ 06.15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2016.06.16 ~ 06.20 16:00  
수업기간 : 2016.06.22(수) ~ 07.13(수)

## Newsmaker

약학대학에 1억 기부한  
82학번 문경, 김지연 부부



## 서울캠 SPACE21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SPACE21 사업이 한창이다. SPACE21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행복기숙사 공정률은 31%, 전체 사업은 22%이다. 서울캠 대운동장에는 간호·이과·한의과대학이 들어설 예정이며 행복기숙사는 2017년 2월 말, 전체 사업은 2017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진=차관호 기자)

## 프라임사업 최종 심사에서 탈락

### 프라임사업 결과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우리학교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PRIME) 사업에 최종 탈락했다.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학교가 지원했던 총 정원 10%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대형(사회수요 선도대학)사업에는 건국대, 숙명여대, 한양대(ERICA) 등 수도권 대학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9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화여대 등이 신청한 소형 유형에는 12개교가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작년 11월부터 프라임 사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4회에 걸친 소통위원회와 그 외에도 수십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구성원들과 소통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부족한 정보 공

유와 구성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더뎌진 바 있다. 우리학교는 1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지난달 진행된 2단계 대면 평가까지 마쳤지만 최종 선정에서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일부에서는 우리대학이 탈락한 것을 두고, 선정 대학 대비 정원 이동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점, 구성원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총학생회와 갈등이 커진 이화여대가 소형 사업에 선정된 것을 볼 때 결정적인 이유로 들긴 어렵다는 것도 의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6개월 이상 전체 구성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만큼 '탈락'으로 인한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조정, 학문단위 개편 등 평상시라면 하나하나의 사안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만한 무게

의 이슈들이 즐비했던 만큼 계획서 상에 담긴 내용이 실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거리다. 대학 측은 당초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내 구성원들에게서도 속속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원이동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주희(사학 2012)회장은 "정책투표 과정에서 밝혀졌듯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해서 함께 장기적인 학교의 발전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병경(체육학 2009)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개월간 프라임사업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좋은 결과를 빚지

못해 아쉽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직원노조의 송혜경 노조위원장은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침체 되지 않고 다시 새롭게 논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다"며 "구성원 간 긴밀한 소통으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교수의회 김홍두 (정보전자신소재공학)의장은 결과에 대해 "학교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 구성원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댓글에는 교육부의 불투명한 선정절차를 꼬집거나 캠퍼스간 균형발전을 요구, 그리고 계획안 자체의 부실함을 꼬집는 이용자의 의견도 있었다. 대학본부 측은 4일 현재 프라임사업 탈락과 관련하여 원인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계획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약사가 투약도 가능해서 자격증을 지닌 선배들이 와서 함께 활동했다"는 이들 부부는, "공부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하면서, 선배들과의 교류도 할 수 있었던 동아리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이들 부부에게 우리 학교는 큰 의미가 있다. 문경 동문은 "약사가 되기 위한 기반을 경희대학교에서 다렸고 이후 사회생활, 생계부양을 하며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의 자리에 있게 해 준 우리학교에 감사표했다. 또한 김지연 동문은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장학금 덕분에 고생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해준 학교에 항상 감사했다"며 "학교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라고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문 동문은 "저는 졸업한 다음에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다보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업의 선택권이 다양해서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후배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졸업 이후의 삶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라는 문 동문은 바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매학기 후배들에게 약사가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과의 교류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표했다.

이어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이들 부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기부를 할 생각"이라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⑯

윤원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자본주의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돈이 최고라는 생각인가? 지금 우리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 한 인물을 만나볼 것이다. 막스 베버. 그에 의하면, 인간은 '의미추구 존재'이며, 자본주의는 욕망추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미추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러한 그의 생각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자본의 크기보다는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있다. 자본주의 정신이 존재하면 자



막스 베버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의미추구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본이 생성되고 화폐가 공급되어 그 정신을 수행하는 수단 노릇을 하지 만, 자본이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정신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노동의 합리적 조직'이다. 그것은 다섯 가지로 설명된다. ① 노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② 정직하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다. ③ 감정의 동요에 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멸하고, 이성으로 잘 계획해서 실천하는 생활을 한다. ④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쾌락, 행복, 즐거움을 포기하고 쓸데없는 휴식과 게으름을 물리친다.

다. ⑤ 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하고 겸손하게 생활한다.

자본주의 정신은 왜 서구에서만 나타났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베버는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 많은 영향을 준 칼뱅파의 '예정 교리'에 주목했다. 예정 교리는 서구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제공했다. 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이었다. 예정 교리는 절대주권자인 신이 자신의 뜻대로, 일부 사람만 구원되도록 예정해 놓았다고 주장한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f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g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Pinterest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O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OYQ)

구글플러스 '경희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전문가 칼럼

####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미래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7면



# 시선

## 사설

### 탈락이 가져다 준 '미덕' 차분한 '소통'의 시간

우리학교가 프라임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 탈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프라임사업'이 그간 6개월 이상 우리 대학 내부를 커다란 논란 속으로 몰고 갔던 사안이었던 만큼 '탈락'이라는 결과 그 자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번 프라임사업은 이전까지의 정부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원규모는 물론 그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프라임사업은 구성원 전체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구성원 간의 극심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 논쟁은 비단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학과 이를 반대하려는 구성원 간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구성원 사이에서도 소속 단과대학이나 캠퍼스 별로 이해가 상충되는 지점에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치열하게 전개됐다.

대학의 세련되지 못한 사업 추진 방식이 이러한 구성원 간 논쟁 상황을 부추긴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신문이 지난 해 여름부터 대학 측에 프라임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질의할 때마다 대학 측은 '교육부의 세부계획안 발표 전'이라는 점을 들며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도 대학 측은 '대외비'라는 명분 아래 관련 정보를 구성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은 '총 40회 이상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며칠 전에 열린 마지막 위크숍에서도 드러났듯 일반 구성원은 대학의 소통을 '생색내기' 정도로 체감할 때였다.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던 지난 6개월은 곧 우리학교가 지난 구조적 문제점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그간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업 계획안이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입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탈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미덕이 있다면,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학문단위 개편과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이제는 각종 부작용과 구성원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채 차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대학은 대학이 그간 구상하고 있던 프라임사업 계획안을 전체 구성원에게 100%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장 프라임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정원조정, 학문단위 개편 등 실제로 무거운 안건들을 실제로 진행해 나갈지, 만일 진행한다면 어떤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전까지 '경쟁대학으로의 유출'을 우려해 공개하지 못하던 각종 정보는,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지금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프라임사업'이라는 변수가 제거된 이 시점은,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대응해가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끝없는 논쟁과 비판 속에 좌초하고 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구성원의 신뢰는 몇 개의 정부지원사업이나 장밋빛 청사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될지 좌초의 계기가 될지 가르는 분수령은, 언제나와 같이 '소통'이 관건이다. 경희가 항상 취약했던, 그 소통 말이다.

### 〈조선왕조 오백년〉으로 유명한 사극의 대가 신봉승 타계

미디어 여론동향 2016.04.25.~05.0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원로 국작가 신봉승(국어국문학 1958) 동문이 지난 달 19일 경기도 자택에서 향년 8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정통 사극의 대가 신봉승 동문 타계/대학주보 온라인, 2016.4.25) 신 동문은 1983년부터 약 8년 간 방송된 MBC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오백년〉을 집필하며 '정통사극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 정사 원전 사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극을 그려내는 그의 사명감은 퓨전사극이 범람하는 오늘날 콘텐츠 업계에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은 우리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60년 〈현대문학〉에서 시·문학 평론으로 등



#### 이주의 주제 - 외국인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 여전한 소수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이수형 (정기자)

dltbd112@khu.ac.kr

우리학교는 고려대학교에 이어 한국에서 2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이다. 학부생만을 따지면 고려대마저 앞지른다. 지난 해 기준 3,144명의 유학생이 우리학교에 등교하는데, 이는 이전 해보다 약 15% 증가한 숫자로 총 재학생 수의 약 9% 규모에 달한다. 통계상으로 30명 정원인 강의마다 유학생이 3명씩 앉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점차 숫자를 불려나가고 있는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큼은 아직 소수자다.

유학생들의 '미신고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등의 부당대우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르바이트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유학생 본인의 과실 때문이 한국인 재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그리고 '미신고 아르바이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유학생 본인의 과실 때문에 한국인 재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그리고 '미신고 아르바이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유학생 본인의 과실 때문에 한국인 재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문제가 지속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조리한 상황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중에 만난 외국인 아르바이트 생 중 단 한 명만이 본인이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조차 "사장님이 친절하시다"며 그 업장에서 반년 넘게 일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 중 대다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 했다. '야간에 손님이 적어서 임금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라든지 '한국어 공부도 할 겸, 경험삼아 할 만하다', '3달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등이다. 그들은 부조리에 저항하길 포기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에, 문제해결의 첫 번째 과제는 유학생 본인의 권리의식 개선이다. 아르바이트 미신고 유학생들이 신고제도 개선 혹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통해 불법 노동자 신세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더불어 문제해결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소수자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이문동 지역의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만 봐도 우리학교, 한국외대, 고려대 등 소속 대학이 제각각이고 중국, 베트남 등 국적도 제각각이다. 이처럼 파편화된 그들을 대표해 정치력을 행사할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외국인근로자 노조에 첫 설립 허가를 내린 바 있다. 각 학교의 유학생회, 지역 알바노조가 이 문제에 무력한 이상, 제자리걸음 중인 유학생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해결 동력을 마련할 이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본인들이 유일하다.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의 걸음을 떼고 있다. 낯선 땅에서 부조리를 겪으며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한국행이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을 그들은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기억할까. 취재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엔 문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 단했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됐던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총투표의 개표 결과, 찬성으로 의결됐다.(국제캠 학생총투표, 모두 찬성으로 의결/대학주보 온라인, 2016.5.3) 국제캠 학생회는 '본·분교 인식 문제 해결', '캠퍼스 간 특성화', '국제캠 건물 개·보수 우선시', '총여학생회 남학생 투표권 개방'의 4가지 안건으로 학생총투표를 진행했다.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논제가 불거져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각각 85.28%와 74.77%의 찬성이, 건물 개·보수 안건은 53.48%가 찬성, 마지막 안건인 총여학생회 투표권 개방 안건은 66.22%의 찬성표를 받으며 네 안건 모두 의결됐다.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총투표는 프라임 사업과 무관하게 6천 명이 넘는 국제캠 학생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생총투표는 투표 첫 날부터 43%라는 유래없는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중간고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커닝 좀 하지 마세요' (#경희\_13881, 2016.4.26)라는 글은 '고학번이 솔선수범 커닝을 하니 커닝이 과 문화인 줄 아느냐'며 '서슴

없이 몇 개 베판니 마니 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인다'는 일같을 날렸다. 62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과 단위로 커닝하는 곳이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희\_13879', '진짜 #경희 교수님들 족보 좀 파괴해 달라, 족보대로 문제 내는 교수님이 문제다'(#경희\_13880)는 글은 106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학생들은 '인맥이 성적과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 '과목을 공부하라는 건지, 교수를 공부하라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과대학 구성원이 Space21 사업에 따라 신축 중인 이과대학관 건축 기금 마련중이다.(이과대학 구성원, 건축 기금 기부/대학 홈페이지 Focus, 2016.5.3) 이과대학 이기태 학장과 박정호 행정실장, 임부자 직원과 이과대학 중앙기기센터 과장을 지냈던 미래문명원 남영수 과장은 최근 '글로벌 트러스트 단과대학 기금'을 미래위원회 사무국에 전달했다.

### 총투표, 무시할 거면 할 필요 또한 없다

#### 세시봉

이시은 (편집장)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가 주최한 학생총투표가 마무리됐다. 지난 2일부터 양 일간 실시된 국제캠 학생총투표의 투표인원은 6,318명으로 재직인원의 과반을 상회해, 다소 짚은 투표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학생총투표는 국제캠에선 그리 특기할만한 뉴스는 아니다.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매번 비슷한 안건으로 비슷한 시기에 꾸준히 반복되면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입학한지 6년째 접어드는 기자의 눈에는 별씨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그려지기까지 한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국제캠에서 벌어지는 총투표나 총학생회(총학) 핵심 공약은 본·분교 인식과 이원화 기준에 연관된 것이었다. 이는 2004년도 학생 투표 안건이었던 캠퍼스 명칭 문제부터 지난해 유사·중복학과와 캠퍼스 특성화 화두에 이르기 까지 모두 같았다. 총투표 이후의 상황 또한 매우 유사하다. 모두 과반이상의 투표율에, 80~90% 가량의 학생들이 총학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후 총투표는 한 달 정도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논쟁은 사라진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 매년 반복되는 안건의 총 투표

#### 분명한 효력 갖고 개선돼야

지난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서울캠퍼스(서울캠) 한균태 부총장의 발언만 봐도 이러한 이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국제캠 총학생회가 프라임사업을 통한 서울캠 이공계 확대에 대해 온라인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자, 한 부총장은 "그러한 댓글들이 국제캠 학생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장 작년에만 국제캠 학생들은 총투표에서 해당 사안과 유사한 맥락의 안건에 대해 약 95%의 부정적 여론을 나타낸 바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은 '소통'과 '의지'의 부족이다. 총학은 매년 같은 공약으로 당선되어 비슷한 안건을 총투표에 걸고, 총학과 맞닿아 있는 학교에서는 '해결 못할 문제를 또'라고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진행하자 외친다. 이 와중에 위 문제를 정말 알고 느껴야 할 교내 핵심 인사들은 총투표의 사항조차 모르거나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한 부총장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다. 벽에 가로막힌 총학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곧 학생들 사이에서 마저 관심은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또다시 내년, 내후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학교는 10년, 20년을 버텨왔다.

학생 총투표의 의미는 크다. 과반을 넘는 의견은 분명 효력을 가져야만 한다. 단순히 '학생들끼리 하는' 의사결정으로 남는다면 이 복잡한 투표과정을 거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관심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결과의 방향을 주시해야만 한다. 10년의 고리, 이젠 끊어야 낼 때가 됐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이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아르바이트 시간 늘리고 싶어”

&lt;시간당 6,030원&gt;

## 서울캠 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이수형 기자 dltdbd112@khu.ac.kr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골목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취기 어린 음성이 회기동을 떠올 때쯤, 기숙사와 하숙집이 빼곡한 이문동은 조용하다. 그나마 이문동 골목을 밟히고 있던 카페불빛도 사라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편의점 간판뿐이다.

늦은 시간 이문동에 흘로 남아있는 중국인 A. 그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한국에 온지 6개월 밖에 안 돼 한국말이 서툰 그녀는 늦은 시간 드물게 방문하는 손님들 앞에서도 되도록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아르바이트 중에도 놓지 않는 한국어교재는 진뜩 헤쳐 있다.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는 그녀는 우리학교 1학년이다.

A는 아르바이트 시간에 학생기자마다 다가와 알지 못할 말을 캐묻는 남자 때문에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그남자가 묻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공부하던 한국어교재를 내밀었고, 글을 동원해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대화내용이 주목을 끈다. “시급이 얼마나?”고 묻는 기자의 말에 그녀는 4,800원을 말했다. A가 오롯이 뜯 눈으로 밤을 보낸 대가로 받는 돈이 43,200원이라는 말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간 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하면, 그녀가 본래 받아야 할 돈은 최소 75,625원이다. 그런데 A의 말에 따르면 “낮 시간에 일하는 중국인 친구는 4,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A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의 야간수당은 300원인 셈이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지,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묻던 기자는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반복해 묻다, A가 통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사실,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에 온지 6개월 이상 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허가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한국에 온지 4개 월째였던 A의 아르바이트 행위는 불법이다. A는 어찌면 43,200원조차 못 받을지 모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사거리 근방에서 일하는 유학생 B도 비슷한 사정이다. B는 베트남에서 왔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일하는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편의점이 학교랑 가깝고 사장님이 친절해 일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낮에 손님이 많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는 이유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시급을 더 많이 받는 요상한 편의점에서, 그는 일한다. 잘 시간이 없어 강의가 없는 시간을 짬짬이 쪼개어 선점을 자아 하지만 생활비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고려대 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B는 오히려 “학부에 다니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부럽다”며 “여유가 생긴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일하는 B. 그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000원짜리 시급은 이미 고민거리가 아니다.

## 불법아르바이트 적발당한 적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만연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학교의 직인이 포함된 ‘시간제취업 확인서’와 함께 근무처, 근무시간, 시급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많은 유학생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 신고서를 하위 기재했거나,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라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넘어, 임금체불·악의적 신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취업’인 것이다. 관련 법

률 상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취업을 알선 혹은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학생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가령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개인의 인식부족으로 부조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C는 B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왔다. 그가 일하는 편의점은 새벽까지 고성이 끊이지 않는 외대앞역 근방 유흥가에 위치해 있다. 술집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야간에 일하는 탓에 그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취객을 상대한다.

그가 그 대가로 받는 시급은 6,000원. 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그는 적은 임금 탓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학교의 확인을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시급 기재란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솔직히 적어내는 것은 곧 업주를 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불법 아르바이트임을 적발당한 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느라 해고당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C는 단지 시급이 적은 것이 억울하다.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하기 힘들고, 다른 업

장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의할 생각은 없다. C는 지금도 적은 임금 탓에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저임금이 굳어지는 챇바퀴를 달리고 있다.

##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적극적 문제제기 못해

물론, 일부 업주들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C의 고용주는 “위치적인 특성상 외국인을 많이 고용했을 뿐, 저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시급을 준다”고 못 밟았다.

일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는 것에는 제도상의 이유도 한 몫 한다. 신고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데다, 미신고 아르바이트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제’의 흥보도 부족하다. 총유학생회 왕건(무역학 2014) 회장은 “유학비자(D2비자)를 가진 학생들은 한 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데, 생활비 부담이 큰 탓에 20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싶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왕 회장은 “총 유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모

두에게 전달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총유학생회는 오는 23일 변호사초빙 법률특강을 연다.

지역 내 시민단체에서 문제해결에 나선 적이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알바노조 경희대분회는 2년 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찍이 문제를 발견했다. 알바노조 경희대분회 신소진(정치외교학 2013)은 “2014년 조사 당시에도 그 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당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는 외국인재학생이 많았다”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제도이탈이 불가피한 유학생들을 일부 악덕업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바노조 경희대분회는 당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악의적 신고 등으로 일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불이익을 겪을 것이 우려되어’ 문제제기를 포기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부조리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길게는 4년이면 한국을 떠나거나, 아르바이트생 신세를 면하는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탓일까. 혹은 유학생들의 생활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행정제도 탓일까. 근로자의 날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용히 지나쳐갔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은 지금도 골목골목에 흘로 남겨져 있다.

##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4 ~ 2007학년 제학생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시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공인영어시험능력지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트레인딩학자
-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종류	계열	대학	면제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국제화영어 시험능력자	국제화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 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1(Level2) 이상
		천지정보대학, 물류교류대학 (용인대학교, 동duk 대학교, 우주과학대학)	193 이상	69 이상	581 이상	650 이상	571(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용인대학교)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1(Level2) 이상
예외능력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1(Level2) 이상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출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일본문)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급증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교원인증서(ABEP) 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단계	제 2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의1	일본어강의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시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 2) 단계 :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 계	내 용	평가방법	학 점	비 고
1단계	독후감평가 (연설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F로 부여	1단계 학점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교제 내용 0~80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1단계 학점 부여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4. 신청기간 : 2016.06.01(수) ~ 2016.06.10(금) 17:00 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티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신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출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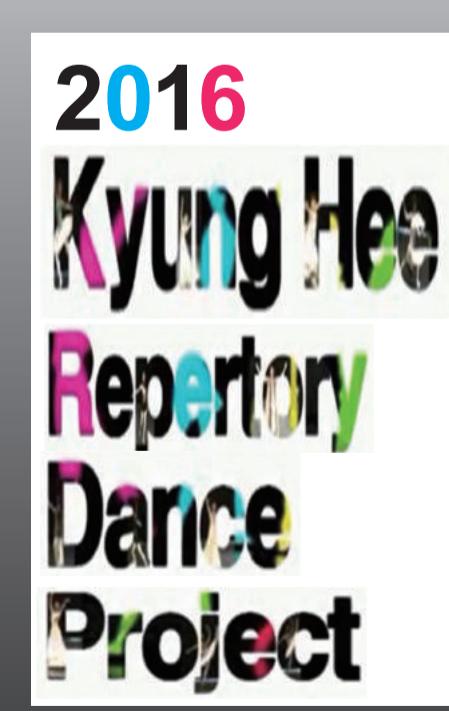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티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201-3401~5)

7.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경희대학교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원본



일시 : 2016. 5. 23(월) ~ 26(목)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amp;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 무용학부 48대학생회 · 문화아이템택토리센터 Contact : 02)961.0539

## 기획

# ‘통섭적 인재’ 가물가물… 설립 목적 상실한 자율전공학과

## 자율전공 정체성 논란

조민호 기자 luve5678@knu.ac.kr  
최병현 기자 chbh102796@knu.ac.kr

2005년 이후 대학가에서는 통섭과 융합 교육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지식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의 책이 이른바 현대의 고전으로 회자되었고, 어느새 ‘다양한 학문을 두루 섭렵한 통섭인재’가 각광받게 됐다. 대학들은 ‘창의적 융합인재를 길러낸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자율전공학과(자전) 신설’에 열을 올렸다. 우리학교 또한 2008년부터 이른바 ‘통섭 열풍’에 뛰어들었고 당시 기획위원회 사무국은 특별팀을 꾸려 자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대학가에 자율전공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학교 측의 포부와 함께 서울캠퍼스(서울캠) 187명, 국제 캠퍼스(국제캠) 124명의 ‘첫’ 자전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서울캠 자전은 초기에는 수시, 정시를 합쳐 190명 가량을 선발했으나 해가 갈수록 조금씩 인원수를 줄이며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2016년에는 수시 65명, 정시는 일반 수능 중심 전형으로 41명을 선발했다. 국제 캠퍼스는 124명으로 시작해 조금씩 인원을 줄이다. 유사 학과들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2012년의 마지막 신입생들을 끝으로 2013년 3월에 폐과했다. 당시 국제캠 자율전공 학부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2012년에 교육부에서 유사학과를 정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기에 자율전공학부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서울캠 자전은, 입학생들이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두 개의 학기를 수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학생들은 인문학, 경영학, 기초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폭넓게 이수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탐색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전공배정을 신청해 의·약학계열(약과학과 제외), 간호계열, 예체능계열, 폐과된 전공을 제외한 전공으로 소속을 확정하게 된다. 만약 타학과로의 전공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일 전공으로 자전 내 ‘글로벌리더’와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학년 말에 다시 타 학부, 학과, 전공을 선택하거나 해당 전공에 남을 수 있다. 설립 취지대로라면 자신의 적성도 찾고, 여러 분야의 학문을 골고루 배우며 통섭적, 융합적 사고방식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 두 학기 동안 소속 전공 없지만 학생들, 서둘러 전공과목 이수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학생들은 한 학기에 평균 수강신청 가능 학점으로 18학점을 부여받는다. 자전 학생들은 2개 학기 동안 총 36학점 중 1학년 필수교양인 글쓰기 1, 대학영어, 인간의 가치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교육(총 13학점)을 제외한 23학점을 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다. 원래의 자진 설립 취지대로라면 이 학점을 여러 분야의 학문을 골고루 배우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전 학생 중에 ‘위와 같이’ 전공을 폭넓게 듣는 학생은 많지 않다. 오히려 서둘러 전공을 짐작어두고 그 학과 수업을 집중적으로 이수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2개 학기가 지난 뒤 전공배정이 이루어지면, 배정된 전공 이외의 타 전공은 교양선택 중 ‘자유이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3학점 이상만 수료하면 되는 자유이수 특성상, 다양한 학과의 전공을 수강할 경우 최대 20학점을 자유이수로 초과 수강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최저 학점은 130학점이다. 한 학기 평균 수강신청 가능 학점인 18학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



‘자율전공학’에 대한 학문적 필요성이나 깊은 이해도 없이, 단지 법과대학 폐지에 대한 ‘정원 보존’의 대안으로 각 대학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자율전공학과(학부), 혹은 자유전공학부이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학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

“

”

학기 동안 144학점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로 인해 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2개 학기 동안 자기 적성과 흥미와 재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전 재학생이 ‘전공배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개수(2016년 1학기 기준)만 33개다. 23학점으로는 각 단과대 당 한 강의도 못 듣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학년도에 자전 학생들의 전공배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23개 전공 중, 한 명이라도 배정된 전공은 총 12개였다. 즉, 나머지 21개의 전공에는 자전 학생들이 배정되지 않았다. 4학기를 수료하고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 ‘글로벌비즈니스’ 학과와 5명 미만이 선택한 학과를 제외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6개로 압축된다. 경영학과(35명), 회계세무학과(13명), 언론정보학과(9명), 경제학과(7명), 정치외교학과(7명), 행정학과(6명)가 그것이다. 이는 자신의 흥미와 재능보다는 특정 학과에 대한 선호로 인해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 학과 내 트랙들

### 기존 교내 과목들과 큰 차이없어

타 단과대학 이외에도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자전 내 ‘글로벌리더’와 ‘글로벌비즈니스’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국제적인 인재를 목표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당 커리큘럼에 명시하고 있지만, 커리큘럼 내 많은 과목은 경영대학에서 제공하는 과목과 거의 일치한다. 이로 인해 경영대학 홈페이지 졸업요건 기준에서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을 따로 명시할 정도다. 글로벌리더 트랙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리더 트랙에서 전공기준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매우 한정돼 있으며, 전공필수로 지정된 ‘헌법’, ‘형법총론’, ‘민법총칙’등의 과목은 과거 법과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던 과목이다.

또한, 학부가 개설된 초창기에 글로벌비즈니스 트랙은 학과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해외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를 복수로 인정해 주겠다는 제도가 있었지만 짧은 기간만 운영된 뒤 폐지돼 해당 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2012년 자전에 입학한 한 학생은 “입시 준비 당시 자전이란 학과 자체가 생소해 정보

를 모으면 중, 경희대의 비즈니스 트랙에서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복수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발견했다”며 “제도에 관심이 많았었지만 학위 제도가 정확히 어떤 체계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 또 입학 당시 선배로부터 학위 제도가 거의 폐지됐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트랙 내의 차별점과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타 과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베껴와 적용했기 때문에 자전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트랙이 ‘다양한 과목을 접하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反)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초심을 잃고 문제점을 방관한 채 자전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태도에 대해 학생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박하현(자율전공학 2012) 군은 “자전을 설치해놓고 설립취지나 목표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학사당국을 보면 차라리 학과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타 전공 수업을 무조건 들을 수도 없으며, 정해진 전공 기초 수업만 들어야 한다”는 그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전과했을 때 들었던 전공기초는 모두 자유이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커리큘럼 상으로 자전 학생이 받는 피해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전 행정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학생들이 유예기간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자전의 진로 탐색의 측면에 반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자율전공학과가 지향해 나갈 정체성, 커리큘럼’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전 측은 “행정상으로나 커리큘럼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행정실 측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자전의 설립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2009년 정부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폐과된 법과대학 인원(T.O.)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율전공학과가 설립됐다는 것이다.

‘자율전공학’에 대한 학문적 필요성이나 깊은 이해도 없이, 단지 법과대학 폐지에 대한 ‘정원 보존’의 대안으로 각 대학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자율전공학과(학부), 혹은 자유전공학부이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학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엔 학과 소개에 ‘법과대학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같은 점은 실제 학생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자전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한다.

## 학문적 깊이 없이

### ‘법대 공백 메우기 용’ 지적도

“글로벌리더전공에 남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로스쿨 진학과 공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법과대학 전공수업이 축소되어 가고 있고, 한 학기에 개설되는 강좌가 한정적이어서 글로벌리더 전공의 특색과 이점이 없다. 게다가 강좌가 열린다고 해도 커리큘럼과는 동떨어진 강좌다.”

그렇다면 타 대학 자전의 경우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2학기를 수료한 후, 전공을 선택한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학생설계전공’을 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학생설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학문) 융합을 토대로 한 교과과정으로, 학생 스스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반면 자전 제도를 폐지한 대학도 있다. 바로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다. 자전이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한 학문의 융합과 유예기간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설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사회 수요에 맞는 통섭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출발한 자전은 특색과 정체성을 잃고, 학생들에게 타 과로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만 인식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유독 대학 측은 자전 내의 정체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자전 내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전로를 겨냥한 트랙이나, ‘전공 쏠림’ 현상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측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초창기의 설립 아념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자전은 결국 ‘용두사미’형 분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정장학, ‘행정’ 아닌 ‘취지’ 쫓아야

## 상이한 우정장학 기준, 이유는?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양 캠퍼스의 소득분위별 우정장학금 지급규정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디시인 사이드 경희대 갤러리’,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경희대학교 에브리타임’ 등 학교 관련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개강 전까지 지속적으로 양 캠퍼스의 우정장학금 지급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우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 산정된 소득분위에 대응해 가계구단 대상자를 상대로 우리학교 장학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 장학금이다. 현재 우정장학금은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장학팀에서 0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소득분위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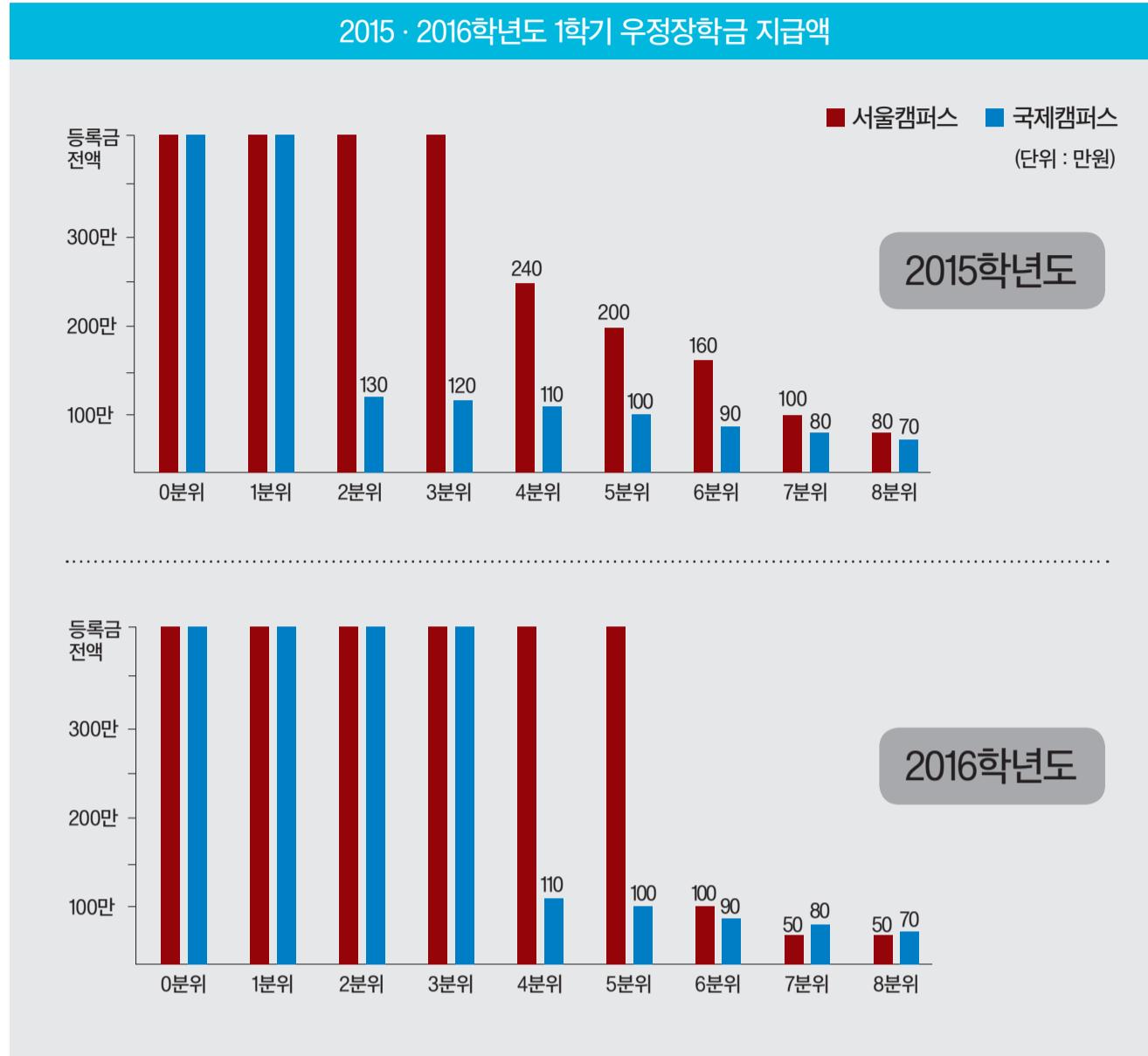
그런데, 지난 1월 30일 작성된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의 12,421번 째 게시물에서는 이 우정장학금에 대해 “2015년도 우정장학 지급안을 보니 국제캠과 서울캠 간의 장학금 배분이 심하게 다르고 실제 소득분위가 똑같아도 주는 금액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이번 학기도 양 캠퍼스

### 우정장학금 서로 달라

이 같은 문제제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먼저 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지난 2015년 2월에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201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서울캠에서는 직전 학기 학점 평점 2.4 이상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0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우정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다. 학점 평점 2.0~2.4 구간에서는 소득분위 0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국제캠은 사정이 달랐다. 직전 학기 학점 평점이 2.0 이상인 경우 0분위에서 1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2분위는 130만 원, 그리고 그 뒤로는 1개 분위 당 10만 원씩 차감한 액수로 우정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다.

우리신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도 우정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양 캠퍼스 장학팀에 요청했다. 하



지만 이 자료를 받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제캠 장학팀은 자료를 바로 건네 준 반면, 서울캠 장학팀은 지난 3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 공개를 거부할 당시 서울캠 장학팀의 김선희 계장은 “공적인 일이 아니라 일부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서약서가 있어 소득분위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으며 장학 대상자 산정, 장학금 분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던 서울캠 장학팀의 입장은, 3월 직원 인사이동 이후 바뀌게 된다. 지난 3일 재문화에 본 결과, 우지연 과장은 “그때 알려드리지 못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우 과장은 “서울캠 총학

에서 (온라인상에) 올린 자료를 직접 봤는데, 게시물에 올라온 지급안대로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장학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양 캠퍼스 우정장학금 지급액은 상이했다. 먼저 이번 학기의 서울캠 우정장학금 지급액은 0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6분위 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7, 8분위 학생에게는 50만 원을 우정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반면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0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4분위 학생에게는 110만 원을, 그 이후로는 1개 분위 당 10만 원씩 차감해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지급내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울캠 장학팀은 “잘 모르겠다”며 “서울캠과 국제캠 지급기준을 정하는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캠 장학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장학팀 최문선 계장은 “산술적으로 보아도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더 많은 서울캠은 국제캠에 비해 평균 등록금 액수가 적다”면서, 이 차이가 ‘전액감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평균 등록금이 약 314만 원인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많은 서울캠의 경우엔 소득분위가 1분위면 우정장학을 70만 원만 지급해도 전액 감면이 될 수 있지만, 평균 등록금이 약 430만 원인 이·공·예·체·능 계열 학생이 많은 국제캠의 경우엔 소득분위 1분위

에 대해 최소 149만 원의 우정장학이 지급돼야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양 캠퍼스 간 소득분위 차이다. 최 계장은 “서울캠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국제캠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캠 학생들의 소득분위와 관련된 자료를 서울캠 장학팀 측에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보기 위해 우리신문이 양 캠퍼스 장학팀에 ‘2015학년도 소득별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자료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제캠 장학팀은 자료를 제공했지만, 서울캠 장학팀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장학팀의 김 계장은 “업무적인 일 이 아니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해 양 캠퍼스 학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동일한 자료에 대해 “개개인의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상관 없을 것”이라는 국제캠 장학팀 측의 입장이나 “민감한 자료이긴 하나, 학교 측으로부터 받으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한국장학재단 측의 입장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다.

## 우정장학, 행정시스템에

### 발목 잡혀 취지 무색

우정장학을 둘러싸고 이번에 학교가 보여준 모습은 학생들을 위한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담당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거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모습은 현재 우정장학에 대한 우리학교의 행정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학규정에 따르면 본래 우정장학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학생이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양 캠퍼스가 우정장학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책을 강구하기는커녕 ‘행정’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전도된 모습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우정장학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분위가 낮으면서 등록금 부담이 높은 학생들이야말로, 이 장학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다. 서울캠과 국제캠으로 나뉘어진 예산의 벽을 이유로 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처우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우정장학의 취지가 행정 시스템에 발목 잡혀 무색해지고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닐 것이다.

##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F (2014학년도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 ●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013학년 이전		2013-학기부터	
	- 온라인서비스수수 및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학기간에 관계없이 입학 후 입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학기간에 관계없이 입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학기간에 관계없이 입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제이민 사회봉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제이민 사회봉사기관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1365 국립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도로제동(www.dongheung.seoul.go.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www.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교내봉사 및 단체봉사에서 주관하는 봉사 ③ 한일: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한글봉사 원본, 사진 및 VMS 한글기록 제출하는 경우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문의: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0)

### ●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6-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6년 5월 26일(월) ~ 2016년 5월 26일(목)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진 3. 소감문	1. 실적등록 신청서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n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공지페이지 [http://www.knu.ac.kr/~\[공지사항\]~\[일반\]~\[내부\]~\[확인\]](http://www.knu.ac.kr/~[공지사항]~[일반]~[내부]~[확인])에서 반드시 확인

### ●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같은 날 실시한 한활+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한활에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한활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도록 인정된 경우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 28 이전	2006. 3. 1~2011. 2. 28	2011. 3. 1 이후
한활증정 당시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인재? 공부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합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인재? 나의 현재 심리상태가 궁금할 때 (무울, 불안 등)

### 3)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성격과 감정,

인재?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움

인재? 자신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성격 특성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보

인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나답을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내 문제를 직면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봉사 활동이 나를 선생님과 전문한 관계를 맺게 되어 기뻤다. 앞으로도 좀 더 나를 움직여 표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알아드리고 존중해줘야겠다는 마음을 갖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불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나답을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시 간: 오전 9시~ 오후 17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장 소: 학생회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

연락처: 031-201-2906

이메일: [course@knu.ac.kr](mailto:course@knu.ac.kr)

예약방법: 친구나 메일, 친구방문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학생생활상담팀

## 기획



## '버스기사 vs 학생' 소통 간담회 열려

국제캠퍼스 버스기사·학생 갈등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학생들과 버스기사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학생회X버스기사님 소통의 간담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총학생회(총학)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버스기사 육설 문제 ▲교내 버스 탑승 질서 문제 등에 대해 총학, 학교, 버스업체의 3자 대면이 이뤄졌다. 버스업체 측에서는 경기대원고속 직원 2명, 용남고속 직원 4명이 참석했고, 학교 측에서는 총무팀 직원 2명, 학생지원처 직원 1명, 총학생회에서는 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우리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최근 교내 버스 기사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페이스북에는 버스기사가 외국어대학 정류장에서 전화를 하며 올라온 학생에게 '버릇이 없다'며 다시 내리고 다시 타게 한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다. 또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승차하는 학생들을 '무임승차 범죄자' 취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총학 김건우(전자·전파공학 2011) 대외협력처장은 "최근에 버스기사님들과 학생들 간의 탑승관련 갈등이 빚어져 기사님들 및 버스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리 마련했다"

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고 이후 학내 탑승 질서 문제와 인식차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버스업체 측에서는 입을 모아 탑승과정에서 무질서 때문에 운행 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M5107 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대원고속 주태무 팀장은 "학생들이 탑승과정에서 무질서하게 버스를 타려고 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버스 운행에 애를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학 측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에는 동의했다. 총학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부회장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다보니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현재 아침에만 한 줄 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점심시간에도 한 줄 서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버스기사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부회장은 "학교가 버스업체에 차고지를 제공하면서 학내 운행을 학생들의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5100번 버스를 운영하는 용남고속 이영식 팀장은 "학생들 중에는 학교가 업체에 차고지를 무료로 내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업체는 현재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버스를 운행 중에 있

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버스가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1~2분이 지연되면 서울에서는 10분 이상 늦어진다"며 학생들에게 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한 줄서기 외에 교내 버스정류장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논의됐다. 용남고속 이 팀장은 "학생들의 무질서한 부분은 의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관련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 생각된다"며 "훈련한 시간대에 2줄로 나눠 탑승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해 욕설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지원처 김종민 계장은 "학생들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욕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버스업체 측도 이에 동의했고, 용남고속 이 팀장은 "학생들 불만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버스기사들의 불만도 확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본사에서 나온 용남고속 사업부 이종규 부장은 "문제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학생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버스기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종합한 2차 간담회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 인류에게 미래가 있는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특별 강연회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서울】 지난 28일, 서울캠퍸스 평화의 전당에서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답하고 위대한 질문>의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 교수의 특별 강연회가 개최됐다. 인류 전체의 위기라 불리는 여러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의 미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위기에 처한 현재의 문명을 지속 가능한 문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현재 우리 대학과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는 '세계 지성에게 묻는다: 문명전환과 아시아의 미래' 강좌시리즈를 공동준비하고 있다. <사피엔스>를 통해 '인류에게 미래가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유발 하라리 교수는 강좌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배치된 이유다.



를 휘두르며 앞으로만 내달리고 있을 때이다. 그는 작금의 시대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생태계 전체를 돌보는 것,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임을 강조하며 1부를 끝냈다.

이어진 2부는 김민웅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보았으며, 이택광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김윤정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수석연구원으로 이뤄진 3명의 패널과 유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답으로 꾸려졌다. 이들이 던진 여러 질의 중 정치와 교육문제에 관한 것이 유독 두드러졌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작금의 정치구조는 산업사회에 대응으로 나타난 20세기의 유산일 뿐"이라며 "21세기의 바이오기술이나 인공지능,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가 미국 대선 후보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의 문제들은 어떤 특정 나라가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며 지구상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는 '지구적 정부'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교육문제에 대해 "정답"만을 쫓는 교육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 할 뿐이며 이는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90%가 미래에는 쓸모없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청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2040년의 미래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 계속 배워나가는 재발견과 재탄생의 능력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좀 더 휴식하고 좀 더 노는 것이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지성에게 묻는다: 문명전환과 아시아의 미래' 프로젝트의 추후 강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5월 말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진정한 행복 위해선

물리적 요인보다 '내면'이 중요

또한 그는 공학 기술의 발달이 곧 다가올 미래 인류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 긍정한 한편, 역사상 현 인류만큼이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세대가 또 없을 거라는 식의 우려를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현 인류는 창조와 파괴의 권능을 지닌 소위 신적 존재가 됐지만, 스스로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적 지위만을 지키기 위해 사피엔스종 이외의 지구 생명체에게 흉기

### 2016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2016년도 국제캠퍼스 예비군 기본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지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용인시 예비군훈련장·용인시 친구구 운학동 부동로 87 / 55사단 172연대 3대대)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5월27(금)	○ 국제대학 ○ 국제·경영대학 ○ 응용과학대학	
5월30(월)	○ 체육대학	
5월31(화)	○ 생명과학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6월1(수)	○ 동서의과대학 ○ 전자정보대학	0900 ~ 1800
6월2(목)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6월3(금)	○ 공과대학 : 건축공학, 건축학과, 시설기반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환경학및환경공학 ○ 특수대학원교육, 이트퓨전, 테크노경영	
6월10(금)	○ 교육원 ○ 외국어 대학 ○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국제, 동서의학, 체육)	

\* 개인별 대상자 명부는 훈련 2주 전에 대학(원별 학과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서 확인

####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헬멧, 고무장) 예비군 규정대로 착용할 것을 청탁합니다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 3. 교통

가. 대학원 차량(인대 버스)을 감염 및 국제캠퍼스 정문 앞 2곳에서 운용  
1) 강남역 : 7번 출구 전방 200m(6번 출구 후방 50m) 우리은행 365코너 앞에서 07:40 출발  
2) 국제캠퍼스 : 학교 정문에서 07:50 출발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치에 도착

#### 4. 유의사항

가. 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자는 임의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연대본부에 확인하여 대상자명단에 포함 후 훈련에 참가하여야 훈련이 유효함  
나. 개인 시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다. 대학학과별 훈련일정은 훈련부대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훈련일자 변경은 절대 불가함.  
라.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자는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훈련 또는 전국 단위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이수하거나 훈련여부 신청(관련서류 첨부)을 허가 할 것  
라. '6년 훈련 시 입소통제 치감' : 09:00이후 도착자는 입소불가 항목, 훈련은 무단불찰 처리됨.  
마.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 2016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 석·박사 과정

1. 모집 분야 : 국제통상법학과 / 국제개발법학과 / 국제경영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법학과에 한함)

#### 3.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4. 전형방법

국내외 각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부(40%), 영어작문서(20%)  
해외외국어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부(60%)

※ 해외외국어 지원자 지원부서 : 인터뷰부문

※ 지원자 지원부서 : 2016년 05월 18일(수) ~ 05월 20일(금) 기간 중 개별면접(예정)

※ 면접일정 : 2016년 05월 30일(화)(예정)

#### 5. 계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기 성적증명서부 (평균, 평점 및 배점율을 성적 기재)

○ 추천서 2건 각 1부(국내기관, 거류양식)

○ 출판(예정)증명서 1부(학술논문, 저작 등)

○ 반영학점 증명서 1부 (3cm\*4cm)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 906-91002-76664

#### 6. 지원자 합격

○ 국제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문 번역증명서부 (평균, 평점 및 배점율을 성적 기재)

○ 출판(예정)증명서 1부(학술논문, 저작 등)

○ 추천서 2건 각 1부(국내기관, 거류양식)

○ 출판(예정)증명서 1부(학술논문, 저작 등)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 906-91002-76664

#### 7.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

- 우편접수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현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지원' 기재)

####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료로 100~50% 면제

○ 학사조직 근무자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개인 곤란증 대상 수료로 100~25% 지원

○ 기숙사 입소자 기숙생활에 기숙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el : 031-201-2146-9, Fax: 031-204-8120

### 2016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안내

- 훈련대상 :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
- 장소 : 경기예비군군장관련장
- 일정


# 인공지능 알파고 쇼크와 인류문명의 미래

전문가칼럼 -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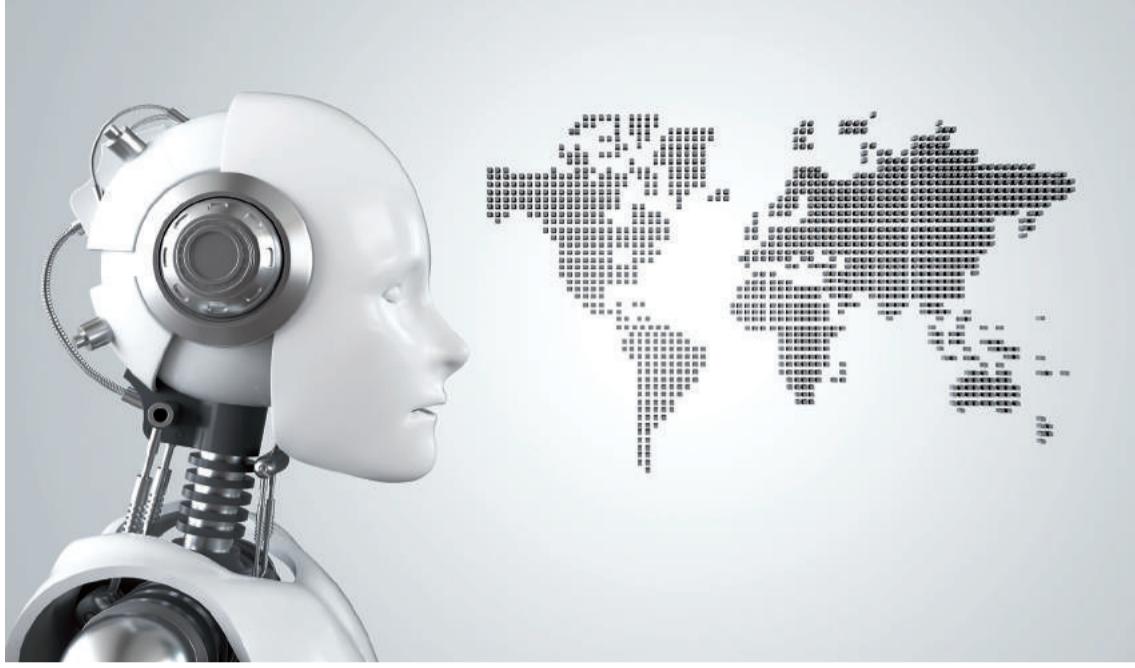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 끝났다. 결과는 4승 1 패로 알파고의 승리였다. 당초 인간의 우위가 예측되기도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다. 이번 대국을 위해 알파고는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그래픽프로세서ユニット)로 무장해, 이 9단의 과거 기보와 약 3,000만 번의 착점학습, 그리고 100만 번의 시뮬레이션 대국을 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결과에 대해 불공정 게임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첫째, 알파고는 이 9단을 상대하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다. 이 9단의 약점을 과거 패배의 학습을 통해서 승리확률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서, 상위 랭킹 선수가 특정 선수에 약한 경우가 있는 데 바로 약점을 알기 때문이다.

## 알파고 쇼크, 인류문명의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둘째, 게임의 규칙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정해진 시간에 연산할 수 있는 양이 인간보다 수억 배나 우수하다. 때문에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인간에 비해 인공지능이 많은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한 게임시간 제약이 오히려 인간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비판에도 인공지능의 능력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된다. IBM의 의료 인공지능인 <닥터 와튼(Dr. Watson)>은 200만 페이지의 전문서적, 150만 명의 환자 기록을 학습해서 암과 관련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산관리나 주식매매 등을 전담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언론사 로봇기사는 개발된 지 오래다. 경제지 <파이낸셜뉴스>는 2월부터 로봇기사를 채용했는데 이름은 'IamFNBOT'이다.



다. 테스트 기간이라 인간기자가 최종 교정을 하지만 한 기사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0.3초라고 한다. 세계적 통신사 <AP>도 2014년부터 자동뉴스 시스템을 도입해 뉴스작성 건수를 늘렸다고 한다.

인간은 야만과 악육강식, 감성적인 동물계와는 다른 이성과 합리성의 힘으로 지구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인간 사유능력과 이성을 능가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인류문명의 미래에 대해 학자들은 3가지 시각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낙관적인 시각이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통합적이고, 이성과 감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창조적 사유가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단지 연산과 계산 등에서 부분적으로 인간을 이기고 있을 뿐이고 다른 능력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1999년에 기계가 인간을 숙주로 삼아 지배한다는 영화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류문명의 파괴를 경고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com)의 안면인식 프로그램 '딥페이스'는 정확도가 97%가 넘는다. 그러나 보니 얼굴사진만 있으면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 각종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류의 문명사를 돌아보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투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분야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해 영역의 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공지능 다루기 위해 제도적·윤리적 문제 고민해야

인공지능은 바둑에서 몇 집 차이로 이기고 자는 것과 같은 연산처리능력의 속도나 결정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윤리적 대응은 불가능하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나왔던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 상황에 직면하면 혼란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선박이 난파당할 경우, 인간은 인류애적인 가치로 어린이, 노약자, 여성 순으로 구출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다수의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입력되어 있다면, 건강한 많은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약자들은 오히려 더 희생당할 수 있다.

## 기획

# 서울캠 주변 전세값 3.3㎡당 930만 원 넘어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사회적 논의

## 데이터로 본 경희

#. 대학주보는 2016년 1학기에 '데이터로 본 경희' 연재를 진행중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컴퓨터 활용 취재보도)를 통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디어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대학주보는 이를 도입하여 교내·외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 시각화해 깊이 있는 기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재의 네 번째 주제는 양 캠퍼스의 대학생 주거문제 현황입니다. 양 캠퍼스 원룸 매물의 전용면적과 시세 등을 분석하고, 실제 거래된 원룸의 실거래가를 통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살펴 봅습니다.

### 연재 순서

1. 양 캠퍼스 주변지역 치안범죄 현황
2.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원 숫자와 강의 개수 변화 추이
3. 프라임 사업 학과별 정원 이동 및 신설학과 현황
4. 양 캠퍼스 대학생 주거문제 현황
5. 양 캠퍼스 도서관 관련 데이터 현황

### 캠퍼스 주변 임대료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서울캠과 국제캠 주변 약 2km<sup>2</sup>의 원룸 매물 총 427개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주거비 과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가가 높은 서울의 특성상 국제캠에 비해 서울캠 주변이 전·월세 모두 비싸 상대적인 부담이 컸다. 서울캠 매물의 평균 전세가는 6,326만 원이었고 국제캠은 5,500만 원이었다. 서울캠 평균 월세가는 보증금 846만 원에 월세가 41만 8천 원이었지만, 국제캠은 보증금 481만 원, 월세가 36만 원이었다.

서울캠이 전세는 약 800만 원, 월세는 보증금 365만 원과 월세 약 5만 원이 비쌌지만, 원룸 전용면적은 대체로 작아 주거 환경이 더 열악했다. 서울캠 원룸의 평균 전용면적은 약 21.7m<sup>2</sup>였고, 국제캠은 26.2m<sup>2</sup>로 4.5m<sup>2</sup> 차이가 났다. 3.3m<sup>2</sup>(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서울캠 전세가는 930만 원이 넘는다.

### 가장 비싸게 거래된 원룸,

### 3.3m<sup>2</sup>(평)당 2,000만 원 육박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올해 1분기 기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전셋집은 서울캠 후문 근방 천장산로에 있는 신축 원룸이었다. 13.86m<sup>2</sup>의 원룸이 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3.3m<sup>2</sup>(평)당 1,900만 원이 넘어가는 액수다. 최고가 월세집은 회기역 사거리에 있는 '메리체 캠퍼스'였다. 24.01m<sup>2</sup>의 원룸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거래됐다. 이곳에서 한 학기 기준 4달을 거주한다면 월세는 80×4=320만 원으로,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다. 등록금이 저렴한 일부 단과대를 기준한다면 등록금보다 주거비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국제캠 주변 가장 비싼 원룸은 전세 7,500만 원에 거래된 20.63m<sup>2</sup>의 원룸이었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전용면적 40m<sup>2</sup>인 집이었다. 서울캠 주변보다 원룸의 전용면적이 넓고 시세도 약간 더 낮았지만,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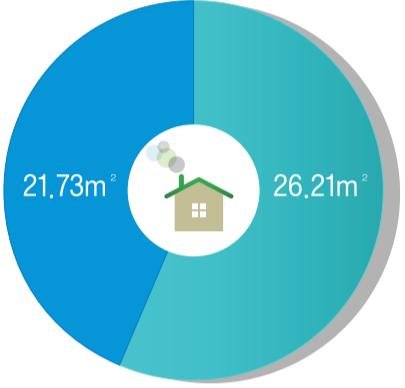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양 캠퍼스 모두

### 〈서울·국제 캠퍼스 원룸 평균 임대료〉



■ 서울캠 ■ 국제캠 (단위: 만원)

원룸 평균 전용면적



전세는 2,500만 원이었고, 월세는 서울캠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었다. 국제캠도 비슷한 시세인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1만 원이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방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날 정도로 편차가 컸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의 방은 반지하나 옥탑이었고, 건축년도가 최소 2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거주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 사실상 주거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 교내 기숙사만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역부족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캠퍼스의 기숙사 수용률이 높지 않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국제캠은 우정원 1,943명, 제2기숙사 2,192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서울캠은 삼의원 392명, 세화원은 434명을 수용하는 것에 그친다. space21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캠에 새로 기숙사를 짓고 있지만 신축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926

명으로 세 개 기숙사 수용인원을 합쳐도 1,752명에 불과하다. 서울캠에 재학 중인 A양은 "집이 수도권이지만 외곽이어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린다"며 "경인지역은 기숙사를 신청할 수도 없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여자 혼자 사는 것이라 대로변으로 구했다니 월세가 50만 원씩 나가 부담 스럽다"고 말했다.

과도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 대상자로 선발되어 LH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전세방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이 제도는 학생이 전세방을 구하면 LH공사에서 해당 전세금을 렌탈준우, 학생에게 전세금의 이자만 받고 방을 렌탈주는 방식이다. 지불해야하는 이자는 최대 17만 5천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월세와 비교하면 매우 합리적이다. 하지만 우리학교 주변만 봐도 서울캠과 국제캠을 합쳐 총 427개 원룸

매물 중 전셋집은 34개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세방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도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LH공사에서 정한 건물기준을 통과하는 집이 아니면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 건물이나 땅값이 낮아질것 우려 공실이어도 임대료 조정하지 않아

매학기가 끝나면 학교 주변 부동산은 방을 구하는 학생과 임대업자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많은 계약이 이뤄지지만 지난치게 비싼 임대 시세에 많은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문동에 위치한 B부동산 측은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이나 땅값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공실이어도 가격을 잘 조정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낮은 가격대의 방을 찾아 반지하나 옥탑방을 보여주면, 실망하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6.05.30(월) 17:00 까지 학번부여: 2016.06.07(화)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6.06.14(화) 10:30 ~ 06.15(수)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6.06.15(수) 12:00 (화) 2016.06.20(일)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6.06.16(목) ~ 06.20(월)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6.06.21(금) 09:00 ~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6.06.22(수) ~ 07.13(수)	
성적발령(정정)일	2016.07.15(금) ~ 07.18(월)	

#### 2. 수업안내

##### 가.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3학점		
2학점	1교시	10:00~11:50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나.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2016.05.04(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 3. 수강신청

##### 가. 수강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1) 학점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활동,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에 수강 가능
- 2) 단. 수강 가능한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 나. 수강신청 방법

-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 4. 수강등록

##### 가.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 1)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등록/정학→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인내] 침조 1) 입학사항: 학번 2016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 다) 등록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의 신청한 고품질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원납하기 바랍니다.

####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6.06.21(화) 17:00	전액 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보이명의 통장 사본 동봉)
수업개시일부터 3/3 경과 전	2016.06.22(수) ~ 06.28(화) 17:00	수강료의 2/3환불	* 폐강과목 수강자에게 환불/수강정지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6.06.29(수) ~ 2016.07.01(금) 17:00	수강료 1/2환불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합니다.)

#### 6. 유의사항

-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이수) 20명 이상
- 나.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6학년도 (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개설학기 수강신청 불가 (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을(수강취소만 가능)

바)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지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사) 개설학기 수강은 출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개설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